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6년 02월 01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김도연의원 5분 자유발언

## 반장 보상품 제도개선 해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김도연(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원이 최근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는 마트에서 반장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백장

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 교환을 요구해 마트주인이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5분 자유발언으로 통해 반장 보상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반장들이 구청에서 받는 보상은 주민홍보용 신문과 설과 추석 때 받는 반장보상금 25,000원, 매달 쓰레

기 종량제 봉투 10장씩 받고 있으며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온 통·반장은 소식지 배부, 무단투기지역 감시, 민방위 소집 통지서 배부 등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배포되는 쓰레기봉투와 반장들에게 지급된 쓰레기 봉투(매달 10장)은 다 소진되지 않아 반장 세대에 쌓여만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것을 5장으로 줄이고 나머지 5장에 대한 비용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반장에게는 실효성을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김도연 의원

## “반장 보상품 지급제도 본격 개선해야”

김도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는 마트에서 반장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백장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 교환을 요구해 마트주인이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반장 보상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반장들이 구청에서 받는 보상은 주민홍보용 신문과 설과 추석 때 받는 반장보상금 25,000원, 매달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장씩 받고 있으며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김도연 의원

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온 통·반장은 소식지 배부, 무단투기지역 감시, 민방위 소집 통지서 배부 등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배포되는 쓰레기봉투와 반장들에게

지급된 쓰레기봉투(매달 10장)은 다 소진되지 않아 반장 세대에 쌓여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것을 5장으로 줄이고 나머지 5장에 대한 비용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반장에게는 실효성을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 반장과 저소득층 배포 쓰레기봉투 수량 줄여야

김도연 의원

(더불어민주당/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도연 의원은 최근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교환하는 첫날 마트를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몇몇 주민들(반장들,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백 장의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교환하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었다며 그로인해 마트 주인이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반장들이 구청에서 받는 보상은 주민홍보용 신문과 설과 추석에 받는 반장 보상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매월 10장씩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도연 의원.

김 의원은 반장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말단에 있는 조직이라며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온 통·반장이고, 현 시점의 반장은 통장을

도와 소식지 배부, 무단투기지역 감시, 민방위 소집 통지서 배부 등 행정보조의 성격이 강하나 강북구의 통장들은 거의 공석률이 없지만 반장의 수가 부족한 동이 있어 공석률이 약 8%정도이기에 통장보다 기피하는 반장의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장들에게 배포되던 쓰레기봉투 10장 중 5장으로 줄이고, 나머지 5장에 대한 비용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반장들에게는 실효성을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배포되는 쓰레기봉투 또한 같은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구청 입장을 답변 달라고 요구했다.